



국
내
외
단
신

터 닛코, 콘크리트 열화방지제 특허 취득
1995. 12. 10

표면처리제의 수입판매상사인 닛코는 콘크리트, 몰타르등의 열화방지제 '올트라 서피스' 시리즈의 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주활동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방식의 시공 판매대리점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저가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2년전부터 주력시공 판매대리점 중심으로 시공대리점을 기술지도하는 대리점 지도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미 동일본 지역에 4개사의 지도 대리점을 설치했으며 현재 60개의 시공 대리점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96년까지 서일본 지역에 지도 대리점을 3개사 이상 설치해 전국적으로 본격 전개할 방침이다.

고강도콘크리트 개발
1995. 12. 20

고려산업개발은 한양대학교 생산공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해온 고강도 콘크리트를 실용화하고 본격 공급에 나서 지난 15일 서울 도곡동 우성 캐리더 주상복합 빌딩 건설현장에 성공적으로 타설했다.

이 콘크리트 초고층 건축물이나 대형 교량 등의 공사에서 단면감소와 효율적인 유효공간 확보를 가능케 하며 콘크리트 자체 온도를 크게 감소시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터 일본시멘트, 베트남 시멘트사업 조속히 추진키로
1995. 12. 20

일본시멘트와 미쓰비시머티어리얼사는 베트남의 시멘트 합작사업의 시작을 서둘러 98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공급이 부족한 베트남 당국의 요청도 있어 당초의 예정보다 반년이상 앞당겨 생산을 개시할 방침으로 이

에 따라 조만간 이 생산설비의 국제입찰을 실시하는데 분할발주하지 않고 단독 회사에 일괄 발주함으로써 공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이들은 합작회사 설립 등으로 계획이 늦어진 면도 있어 공장완성까지의 스케줄을 대폭 가속화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는 사회자본정비가 급속히 진행되 시멘트 수요가 대폭증가했다. 95년은 그 성장률이 베트남 정부의 예측을 웃돌았기 때문에 수입이 쫓아가지 못해 일시적으로 공황상태가 되는 등 수급불균형이 심각해졌다.

이의 영향으로 베트남 정부가 일본시멘트, 미쓰비시머티어리얼사에 합작사업의 조기 실시를 요청한 것이다.

유통, 정보통신 참여로 사업다각화
1995. 12. 22

한일시멘트는 오는 2천년까지 유통서비스와 정보통신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시멘트부문에 주력했던 기업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5년간 유통부문에 신규 진출하는 한편 정보통신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본, 포장 시멘트 25kg으로 경량화
96. 1. 1

일본시멘트협회는 작년 11월 30일, 현행 40kg을 25kg으로 경량화하는 포장시멘트의 경량화를 위한 실시요령을 결정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것에 기초하여 포대의 사양 및 싸이즈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금년 4월이후 준비가 된 메이커부터 임의로 경량포대로 교체해 갈 방침이다. 포장시멘트는 1971년에 50kg에서 40kg으로 된 이래, 현행의 중량이 정착하고 있다.

다른 건재제품은 경량화 경향에 따라 이전부터 대리점 업계 및 건재상 등으로부터 경량화 요구와 이에 따른 시멘트업계의 검토가 있었으나 비용상승등의 문제 때문에 보류되어 왔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요구와 해외의 경량화 경

향에 따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멘트업계는 25kg포대로의 경량화와 함께 현행 3겹 폴리에틸렌지대를 2겹으로 변경하기 위해 현재, 강도 방습효과와 확인 시험 중에 있으며 동시에 지대사이즈 및 지질 등의 사양도 검토, 금년도 중에 통일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사양에 기초하여 지대 메이커에 경량지대의 제조를 요청, 아울러 팩커설비의 개조를 한다. 이러한 준비로 25kg포대로의 교체가 시작되는 것은 7, 8월경이 될 것으로 보이며 팩커의 개조 및 지대비용, 운반비의 비용상승의 과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인도네시아에 시멘트공장 건설 96. 1. 8~96. 1. 11

- 한라시멘트는 인도네시아의 PT수리아시나기삭티사와 2억5천만 달러를 투자, 인도네시아 웨스트자바주의 시바닥 지역에 연산 1백만톤 규모의 합작 시멘트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경제개발로 한찬 건설 붐이 일고 있어 시멘트 공급난을 겪고 있는 이지역에 일괄수주방식(턴키베이스)으로 건설해 한라시멘트는 공장운영을, 현지사인 PT 수리아시나기 삭티사는 대정부 업무와 시멘트 판매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에 착공 오는 99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

- 또한 웨스트 수마트라주에 연산 3백50만톤 규모의 시멘트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 주요 프로젝트를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추진기로 합의했다. 한라시멘트는 인도네시아의 NCD사와 합작으로 수마트라의 쿠타가당 지역에 시멘트공장 건설을 설계, 시공 일괄수주방식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당 신국제공항 건설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 칸탄지방에서도 현지 비나그룹과 총투자 금액 4억달러로 한라와 비나가 각각 65%와 35%의 지분을 출자하여 연산 2백만톤 규모의 시멘트공장을 합작 건설기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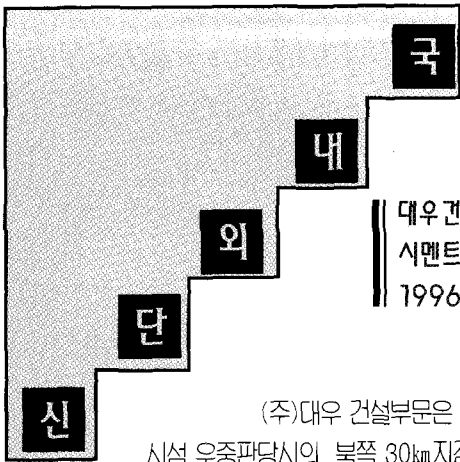
는 의행서에 서명했다.

합작사의 이사회는 한라 5명, 비나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한라시멘트는 이 공장을 턴키베이스로 수주, 건설해 공장운영을 맡고 비나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제품판매와 대정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비나그룹과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는대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 공사현장에 건식레미콘방식 도입 추진 1996. 1. 30

'물타기' 등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레미콘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거나 물만을 현장에서 직접 배합하는 건식 레미콘 방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나 벽지지역 등에서만 허용하던 이동식 레미콘 생산설비를 일반 건설현장에도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며 골재, 시멘트, 물을 공장에서 배합하는 현행의 습식레미콘 배합 방식 대신 물만을 공사현장에서 직접 배합하는 건식방식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레미콘협회 및 관계부처 등과 건식배합 방안을 협의하고 9월까지 건설협회와 현장 물계량장치 설치 방안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내년 3월에는 건식 레미콘 방식의 설비를 현장에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중 '건식 배합 방식 활용지침'을 마련,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교통체증 지역과 벽지의 공사, 고강도 및 특수레미콘 사용시에 현장에 이동식 레미콘 배합설비인 배처플랜트(B/P)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장B/P설치지침'을 금년 하반기 중에 보완해 일반 건설 현장에서도 이동식 레미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장 배처플랜트의 설치 확대도 레미콘 및 콘크리트 품질 책임을 시공자 담당에 따라 책임이 일원화되 품질관리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
내
외
단
신

**대우건설부문, 인니
시멘트 플랜트공장 수주
1996. 2. 13**

(주)대우 건설부문을 인도네시아 남술라웨시섬 우중판당시의 북쪽 30km 지점에 위치한 마로소 지역 15만여평부지에 오는 4월에 착공.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98년 4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지 세멘보소와 마로소사로부터 연산 1백80만톤규모의 시멘트 플랜트 공사를 2억8백만달러에 턴키방식으로 수주하였다. 이번 공사는 세멘보소와 마로소사가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에 따라 시멘트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주한 것으로 마로소 지역은 석회질이 여타 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세아 시멘트 천광산업 인수계획 발표
1996. 2. 16**

지난해 레이콘업체인 대성기업과 골재채취, 판매업체인 대성산업개발을 인수, 레이콘사업을 확장시켜온 아세아시멘트가 레이콘생산 전문업체인 천광산업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레이콘생산 능력을 연 4백만㎡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충남 아산시 응봉면 송촌리에 위치한 천광산업은 대지 5천평규모에 레이콘을 연 40만㎡를 생산해 왔다.

**석탄재 재활용사업 확대추진
1996. 2. 24**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석탄재 재활용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석탄재정제와 건축용 골재생산에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석탄재의 재활용 용도를 더욱 확대키 위해 현행 레이콘 혼화재, 시멘트원료, 벽돌, 경량골재에다 추가로 성조재, 토양개량재, 지반재, 제품첨가재 등도 포함한 석탄재의 재활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석탄재

의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석탄재의 고순도 정제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일반 건설 현장에서 석탄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석탄재 배합기준 및 콘크리트 시공지침을 작성해 실용화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삼천포화력 발전소내에 22억원을 투자해 20만톤급 2기의 석탄재 정제공장을 건설 연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의 석탄재 재활용실적은 한전의 유·무연탄 9개 발전소와 8개 자가 발전 업체에서 290만톤의 석탄재가 발생해 이중 23.4%에 해당하는 68만톤이 재활용되었으며 재활용 용도는 레이콘혼화재, 시멘트 원료, 벽돌 등으로 약 90%가 레이콘 혼화재와 시멘트원료로 재활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석탄재발생 예상량 330만톤중 29%에 해당하는 99만톤을 재활용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약 45%가 증가한 규모이다.

**다공성 세라믹 개발 성공
1996. 2. 21**

쌍용양회 중앙연구소는 각종 산업폐수를 정화하는 능력이 우수한 '다공성 세라믹' 개발에 성공, 기존의 폐수처리기간을 1/6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미세한 구멍이 많은 특수 세라믹을 개발과 함께 국내 최초로 세라믹을 이용한 폐수처리시설을 완성했다. 쌍용은 이폐수처리시설을 이미 특허 출원했고 미국 일본 등에서도 국제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며, 이 폐수처리시설은 세라믹의 구멍속에서 미생물을 배양시켜 폐수가 이 세라믹들을 반복해 통과하며 깨끗이 정화되는 원리이다. 기존의 폐수처리시설은 미생물을 배양시키는 매개체로 플라스틱이나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생물이 자라기 어려워 폐수처리에 드는 공간이나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

**히스미토모 오사카시멘트사, 열선 칩폐재 개발
1996. 2. 29**

일본의 스미토모 오사카 시멘트는 금속산화물의 초미립

자를 이용한 투명한 열선 차폐 재료를 개발했다. 지금까지의 차폐재가 빛을 반사하거나 착색하고 있는데 대해, 신재료는 태양의 밝음을 손상하지 않고 더위만을 줄여 건물의 개구부나 자동차 glass용으로 이용된다. 햇살이 강한 동남아시아 등에도 수출할 예정이며 3년 뒤에는 10억엔의 판매고를 기대된다. 상품화한 것은 UV 차폐 기능을 부가한 코팅액과 필름으로 이는 입경 10nanometer(1나노는 10억분의 1) 이하의 금속 산화물 초미립자가 전자의 회전에 따라서 特定域의 파장을 반사하는 특성을 이용해, 780-2500 nanometer의 근적외선을 차폐하며 이 때문에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을 통과시키면서도 태양열에너지의 약50%를 차단한다.

쌍용양회, 골재사업 강화
1996. 3. 5

쌍용양회는 골재사업부문의 매출을 지난해 6백20억원에서 올해 7백30억원, 그리고 오는 98년에는 1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골재부문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인천 시멘트 유통기지 안에 있는 연간 120만^m의 바다모래 세척공장을 내달중 10억원을 들여 150만^m로 증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석산에서의 골재 생산능력은 연간 190만^m에서 220만^m로 증가했다. 쌍용양회는 건축용 모래와 자갈 등 국내 골재수요의 꾸준한 증가 전망과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골재의 자체적 확보를 위하고 또 고수익 제품인 모래의 생산비중 확대, 신규 석산개발,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강화, 제품의 차별화, 고급화를 통해 골재사업의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기로 한 것이다.

일본 동경전력 발전소 건설용 시멘트 수출
1996. 3. 6

쌍용양회는 일본 동경전력에 발전소 건설용으로 시멘트 1만톤을 수출하며 동경전력은 시멘트를 오는 99년부터 가동될 예정인 1백60KW급 양수발전소 건설에 사용할 예정

이다. 쌍용양회가 수출하는 물량은 이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10% 정도를 차지하며 동경전력은 엔고이후 각종 발전설비를 한국중공업등 한국 업체로 부터 수입한데 이어 이번에 발전소 건설용 시멘트까지 한국기업으로부터 수입기로 한 것이다.

한국중공업 인니시비농 시멘트공장 착공
1996. 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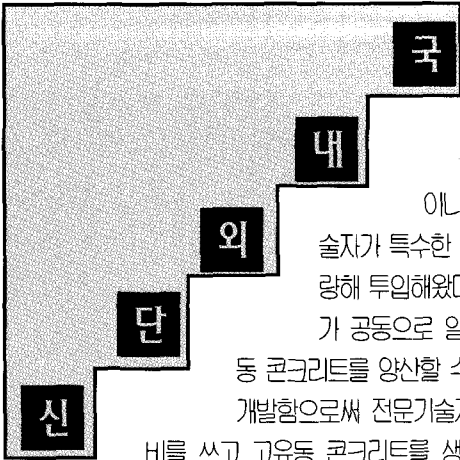
한국중공업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세계 최대규모의 인도네시아 시비농 시멘트공장이 지난 3월 8일 현지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한국중공업이 인도네시아의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인 시비농사로부터 수주한 이 공장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서부 나로공지역에 건설되는 세계최대규모(연산 260만톤, 일산 7천800톤)의 공장으로서 총공사비는 3억4천만달러이며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까지 턴키 방식을 건설하여 오는 98년 2월 완공 예정이다.

진성레미콘, 건조 모르타르공장 완공
1996. 3. 9

레미콘 생산업체인 진성레미콘이 경기도 광주에 70억원을 투입, 건평 3천평규모로 모르타르 공장을 완공하고 건축공사용 마감재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건조 모르타르사업을 강화한다. 이 공장은 연산 30만톤규모의 건조모르타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구운 모래를 특수 화학제품을 사용해 배합한 재료로 공사장에서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첨단제품으로 시장규모가 5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 스미즈 건설 가오와 공동으로 고유동 콘크리트용 혼화제생산
1996. 3. 9

지금까지는 고유동 콘크리트 생산을 위해서는 종합건설



이나 혼화제 메이커의 기술자가 특수한 약제를 손작업으로 계량해 투입해왔다. 스미즈건설과 가오가 공동으로 일반 생산 설비로 고유동 콘크리트를 양산할 수 있는 액체 혼화제를 개발함으로써 전문기술자가 없더라도 기존설비를 쓰고 고유동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회사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고유동콘크리트는 복잡한 형상의 구조물물에 이용되며 유통성을 높이는 고성능AE 감수제와 재료보리를 막는 중점제 등이 고유동 콘크리트에 함유된다.

제천에 대형 화물 터미널 조성
96. 3. 10

충북제천지역에 대단위 주차 시설과 정비공장등이 갖춰진 화물터미널이 오는 97년까지 들어선다.

2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 지역 화물운송업체 및 차주들로 구성된 대형화물 연합회는 60여억원을 들여 내년 10월까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대 6만5천1백93㎡에 대단위 화물터미널을 세우기로 했다.

이 화물터미널에는 8백여대의 시멘트 운송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비롯 정비시설, 부품판매소, 주유소, 식당 및 휴게소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화물터미널이 완공되면 중간 업자에게 운송료의 40~50%의 알선료를 지불해야 하는 기존의 불합리한 운송체계에서 벗어나게 되 운송업체 및 차주들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합회관계자는 T당 1만4천원인 시멘트 운송료 가운데 알선료가 6천~7천원에 이르는 등 화물운송 알선업자들의 횡포가 심해 화물터미널을 설립하게 됐다. 이 화물터미널이 완공되면 교통난을 유발시켜 왔던 대형차량들의 불법 노상주차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지역에는 시에 등록된 대형화물트럭 8백여대를 포함, 하루 평균 2천3백여대가 시멘트 수송등을

위해 이 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백여대가 주차공간이 없어 노상주차를 하고 있다.

특수시멘트 용도소개 새 카다로그 배포
1996. 3. 14

쌍용양회는 판매중인 초조강 초속경 고강도시멘트, 각종 몰탈제품 등의 특수시멘트와 몰탈제품들의 특징과 용도를 소개하는 컬러판 카다로그 1천부를 제작해 전국의 대리점및 건설회사등에 최근 배포했다. 새 카다로그에서는 종전과 달리 여자 모델을 등장시키고 만화를 곁들여 시공방법까지 소개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건조모르타르공장 준공 및 생산·공급 진성레이콘(대표 李泰來)이 지난 94년 10월 착공 1년 6개월간 광주의 건조 모르타르 생산공장을 완공하고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필리핀 FR시멘트사에 선진기술 제공
1996. 3

동양시멘트는 지난 94년 8월 5년간의 기술제공 계약을 맺은 필리핀의 FR시멘트사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4년 12월에는 FR시멘트사의 모기업인 시셈(SEACEM)에 자본을 투자한 바 있다. 현재 FR시멘트사는 현재 1백만톤 증설 중에 있는데 지난 2월 8일부터 12일 까지 필리핀 FR시멘트사의 공장장과 매니저급 5명이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을 방문하여 기술교육을 받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FR시멘트사 실무진에 대한 기술교육도 실시되었다. 시셈은 FR시멘트 외에도 다수의 시멘트회사를 인수할 예정이어서 FR사 기술진의 방문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동양시멘트는 FR사의 증설이 끝나면 새로운 설비에 대한 고도의 운전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